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6호 【루게 제24529호】 주제 103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681군부대 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681군부대 관하 포병구
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
시였다.

인민무력부 부부장 윤동
현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장령들인 박정천동지, 운영
식동지가 맞이하였다.

포사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사격순차와 방법을
정해주시고 사격을 시작
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적어주신 위치로 기동하여 화력
진지를 차지한 구분대는 포사격을
개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포사격훈련을 주의깊게 보시고
구분대가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
만히 수행할 수 있게 산악극복능
력을 강화하고 기동전개시간을
단축하며 전투사격속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을 잘하지 못하였다
고 하시면서 구분대의 싸움준비가
잘되지 않았다고 엄하게 지적하
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주체적인
포병무력은 우리 인민군대의
화력 타격의 기본력량이고
최고사령부의 작전전술적기도도
결국에 가서는 명포수들로 자라난
포병들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하시

면서 오늘 진행한 포사격훈련이
잘되지 않은것은 훈련에서의 형식
주의가 낡은 결과이라고 말씀하시
였다.

포병훈련에서 형식주의적이며 도
식적인 훈련방식과 멋따기를 하는
현상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
들고 명포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데 이곳 구분대와 해
당 부대의 지휘관들의 마음은 싸움

마당을 떠나있는것 같다고 지적하
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쟁은 예고없이 일어나며 그에 대
처하여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고있어야 적들의 불의
적인 침공을 즉시에 제압하고 작전
과 전투에서 주도권을 쥘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일부 지휘관들속에서 군인

들을 다른 사업에 동원
시키며 훈련을 뒤자리에
놓는 현상이 나타나고있
는데 물론 군인생활개선
을 위해 부업도 하고
부강조국건설에서도 한
몫해야 한다, 그러나 항
상 싸움준비를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구분대의 싸움준비에서 심
중한 결함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부대당위원회가 지
휘관들과 군인들이 자기들
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당정치
사업, 군인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반미대결전을
눈앞에 둔 지금 싸움준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는 오늘 못하면 래일 해
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
화에서 나서는 강력적인 과업들
을 제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정일군사연구원 준공식 진행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을 맞으며 주체적 군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김정일군사연구원이 일떠서 준공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력적인 령도와 보살핌속에 창립되고 강화발전되어온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품격에 맞게 모든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김정일군사연구원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군사일군양성의 중심기지며 김정일시대의 또 하나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이다.

백두산천출명장들의 령도업적으로 빛나는 력사가 있고 권위가 있는 세계적인 군사종합대학에 불세출의 선군령장 김정일대원수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동상을 모신 군사연구원이 일떠서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따르고 받들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갈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력사적사건으로 된다.

김정일군사연구원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건국설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김일성-김정일전략철술로 튼튼히 무장한 위능의 군사지휘관들을 억세게 키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백두산혁명군대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정일군사연구원 준공식이 25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준공식장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뜨겁게 끓어번졌다.

준공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린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라는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양열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에위병대가 정렬해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기발게 양대들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나뭇기고있었다.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와 무력기관 일군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 종업원들, 각급 군사학교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군인가족들,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공헌한 단위 일군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준공식에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정일군사연구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이 제작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 제작을 군대, 연구원의 책임일군들이 하였다.

제작포가 벗겨져자 선군조선의 존엄이시

며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빛을 뿌리었다.

하늘땅을 진감하며 우렁찬 환호성과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뜻깊은 4월의 하늘가를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우리 당과 국가, 혁명무력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김정일군사연구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각급부대, 군사학교들, 결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덩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어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한평생 야전부처럼으로 준엄한 선군혁명의 강행군길을 이어

가시며 김일성조선의 국력을 온 세상에 떨치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인사를 드리었다.

인민무력부장 장정남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고조진군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정일군사연구원 준공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며 선군대장정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던 그 나날처럼 수수한 야전술을 입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리며 우리모두는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김정일군사연구원의 자랑찬 력사에 아로새겨진 어버이장군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총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는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군대강화발전에 선자적인 힘을 들여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지휘관양성의 원종장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우리 나라 군사교육의 최고학제인 연구원을 내오도록 하시고 양성대상과 규모, 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군사연구원을 권위있고 종합적인 군사간부양성기지로 꾸려주시었다.

군사연구원이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고 그 어떤 현대자전도 능숙히 조직지휘할수 있는 쇠소리가 쟁쟁 나는 유능한 군사지휘관들을 키워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와 숨결이 뜨겁게 어려있는 군사연구원이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세상에 들도 없는 군사지휘관양성의 최고전당으로 전변된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혁명활동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그때부터 군사연구원을 중시하시며 빨찌산식전법을 능숙히 활용할수 있는 군사지휘관들을 더 많이 키워내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학창립 60돐을 맞으며 연구원을 김정일군사연구원으로 명명해주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새로 건설하도록 하시였으며 연구원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실수 있게 하여주시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창립 60돐을 뜻깊게 경축하는 그날 현지에 나오시어 연구원건설부지를 잡아주시고 설계와 시공으로부터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시었다.

지난해 11월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또 다시 건설장을 찾오시어 군력강화의 핵심골간들을 키워내는 김정일군사연구원을 교육시설에서나 교육환경에서 최고의 최고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긴 만수대장작사 창작가들과 군인건설자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 연구생들은 뜨거운 충정과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으며 수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도 뜨거운 지성을 바치었다.

연설자는 대학안의 교직원, 연구생, 학생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의 건국설업위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승고한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그는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선군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3 번 으 로 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정일군사연구원 준공식 진행



2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외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며 장군님의 유훈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백두산의 흰눈같이 순결한 향심과 도덕의리를 지니고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며 혁명무력강화발

전에 쌓아올린 장군님의 업적을 천세만세 길이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적인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하늘땅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한목숨바쳐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련합부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무적의 전투력을 더욱 굳건히 다짐으로써 명명만 내리면 번개처럼, 폭풍처럼 달려나가 빨찌산투쟁방식으로, 백두산혁명정신으로 날강도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었던 조국통일의 역사적대업을 기어이 이룩하여야 한다.

김정일군사연구원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뜻과 정을 같이하는 의리의 인간,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영웅적투쟁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진짜배기싸움꾼, 백두산호랑이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교직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의도대로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군사교육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연구생들을 김정은빨찌산으로 역세계키우며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데서 튼튼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연구생들은 분초를 아껴가며 정력적으로 학습하며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군사기술적으로 막힘이 없는 만능지휘관으로 준비함으로써 조국통일대전에서 만강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다지고다져온 무적의 힘과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야 할것이다. 교직원, 연구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언제나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위하며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충정의 일편단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김정일군사연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교육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도록 조건보장사업을 더 잘해주어야 할것이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이 있기에 김정일군사연구원은 주체적군사교육의 최고전당으로서의 영광을 더 높이 떨치고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라고 하면서

당의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은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동상을 돌아보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김정일군사연구원은 절세위인들의 손길에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 걸어진 영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김정은혁명강군의 강화발전예에 영원불멸할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을 맞아 김일성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조선인민군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 인민군장병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5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향연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인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룩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향연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동지의 존엄을 높이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행으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적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 거창한 혁명실적으로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선군전통을 창조하시고 인민군대를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건설하시어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자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주체적군사사상과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절절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각계 중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적여져있었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결승의 최정에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만수대학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에도 한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각지의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 진정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25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군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려사릉들과 려사묘의 화환진정대에 놓여있었다.

렬사릉들과 려사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장정남동

지, 김기남동지, 박도훈동지, 양형성동지, 리용무동지, 김원홍동지, 박법기동지, 오수용동지, 최부일동지, 파범두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화환진정대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념정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백두산대장군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행으로 된 화환들이 애국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화환진정대 《영웅들의 넋》에 진정되었다.

이어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부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평양시내 당, 무력, 정권

기관, 시급기관,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명기에는 《혁명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 려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말들이 적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려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참가자들은 려사릉들과 려사묘를 돌아보았다.

각지에 있는 려사들의 동상과 려사릉, 인민군 려사 추모탑, 려사묘들에

화환 진정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각지에 있는 려사들의 동상과 려사릉, 인민군 려사추모탑, 려사묘들에 지방당, 정령, 인민군렬사추모탑, 려사묘들에 25일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화환진정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군 장병들, 각계중 근로자

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렬사들의 동상과 려사릉, 인민군 려사추모탑, 려사묘들에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

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조국의 자유독립과 부강번영,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려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백두의 대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수해갈 혁명강군의 진군가

뜻깊은 건군절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군악시위행진과 군악연주회 진행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82돐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군악시위행진과 군악연주회가 25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원덕아래에는 조선인민군 종합군악대가 정렬해있었다. 종합군악대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장중하게 주악하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주악되자 만수대원덕과 연도의 군중들속에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경도의 정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조선인민군 종합군악대가 최고사령관님과 공화국기를 대오앞에 휘날리며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의 군악에 맞추어 김일성광장을 향하여 군악시위행진을 개시하였다. 주제적인 혁명무력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주고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는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우렁찬 군악소리가 하늘 땅을 진갈하였다. 《혁명군의 노래》, 《7.27행진곡》 등의 힘찬 군악을 울리며 시위행진대오가 창건 82돐의 날을 기념하였다. 졸업한 항일대진과 조국해방전쟁에서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무찌르며 영웅하게 싸운 항일혁명선열들과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백혈불굴의 정신이 대오마다에

세차게 나래쳤다. 원수들의 아성을 들부시는 포성파도 같은 장쾌한 울림은 수도시민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 건군절을 맞이한 격정과 환희를 더해주었다. 혁명군악을 높이 울리며 나아가는 시위행진대오를 향해 해빛같은 초고층빌딩의 창가들에서 시민들이 기쁨에 넘쳐 손을 저어주었다. 82년전 우리 혁명무력의 탄생이 선포되던 령도의 그날로부터 당과 수령의 령도를 무장으로 받들어온 혁명군대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돌이켜보게 하는 《조선인민군가》가 힘있게 울려왔다.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온 참다운 혁명군대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며 자주적인민들의 긍지높은 역사를 창조할수 있었다. 일찌기 총대에 나라와 민족의 독립도, 혁명의 승리도 있다는 철리를 밝히고 주체혁명의 첫 혁명군대를 창건하시어 현재의 위력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선군혁명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백두에서 개척된 건군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혁명강군



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선군정치를 제일선에서 만들어나가는 선군혁명의 기동,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군중들은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주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고 혁명무력건설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백두의 선군령장들께 마음속으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힘찬 군악을 울리며 보무당당히 전진하는 시위행진을 보며 그들은 위대한 수령, 걸출한 선군령장을 모시어 우리 군대의 80여성상이 조국과 인민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온 혁명무력의 성스러운 력사로 빛나고있음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선군혁명의 명백을 굳건히 이어주는 백전백승의 기치로 혁명의 최전방에 빛나는 찬란한 선군대양을 우러러 인민군장병들의 사상정신세계를 긍지높이 보여주었다. 《해안포병의 노래》, 《조국찬가》, 《수령이시여 명명만 내리시라》, 《승리의 열병식》,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를 비롯한 혁명군악들이 광장을 뒤덮었다. 조선이 낳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철적 의지와 사투의 거리마다에 끓어왔다. 전투적이며 기백이 넘치는 혁명군악으로 백두산장군들의 선군령도를 따라 싸워나가는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 것이라는 절대불변의 철리를 새겨주며 군악시위행진대오가 김일성광장에 들어섰다. 광장에서는 레식을 배합한 군악연주회가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가》의 군악소리가 울리는 광장에 종합군악대가 대형변화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을 형상하고 《4.25》라는 글을 새기었다. 장중한 울림과 호소적이면서도 전투적

기백이 넘치는 선물은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휘날리며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나아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멸의 기상, 인민군장병들의 사상정신세계를 긍지높이 보여주었다. 《해안포병의 노래》, 《조국찬가》, 《수령이시여 명명만 내리시라》, 《승리의 열병식》,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를 비롯한 혁명군악들이 광장을 뒤덮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사상적핵탄을 만장약한 선군의 강군, 그 어떤 대적도 단념에 때려부실수 있는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상이 뜨겁게 맥박치는 군악들과 씩씩하면서도 특색있는 소고수들의 기교동작의 신념과 의지가 수도의 거리마다에 끓어왔다. 세사천지가 열백년 뒤집히고 그 어떤 역풍이 불어와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백두산혁명강군의 지시마냥 군악소리는 끝없이 메아리쳤다. 주제적혁명무력의 필승의 기상이 넘쳐나 있는 광장에 종합군악대가 화려한 대형변화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원수님을 형상하고 《사수》라는 글을 새기며 연주회의 마음을 장식하였다. 조선인민군 군악시위행진과 군악연주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백두의 대업을 총대로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과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김정은최정에 혁명강군의 백혈불굴의 투지를 힘있게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중국 국가관광국친선참관단 꽃바구니 진성

만수대원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5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및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총련일군들과 패세일동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천리방선초소들에 펼쳐진 군민대단결의 화폭

인민대표단들 인민군부대들을 방문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82돐을 맞으며 인민대표단들이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방문하였다. **우리의 나라 전체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 최정에 혁명강군으로 자라나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영웅적역훈을 떨쳐가고있는 조선인민군에 대한 긍지를 안고 건군절을 경축하고있다.** 뜻깊은 명절을 맞이한 천리방선초소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빛내이시며 인민군대를 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나가고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고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건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천대가 되자!》,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데서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있는 인민군부대들은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인민군인들이 부대들을 방문한 인민대표단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조선인민군 창건 82돐 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각지에서 진행

조선인민군 창건 82돐 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당창건기념탑, 개신문,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강성국가건설에서 선군정년전진의 슬기와 용맹을 펼쳐 뜻깊은 건군절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기쁨과 환희로 설레어있다. 무도회장들에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주제혁명무력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고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인민군을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

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시는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들이 인민군부대들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온정어린 선물이 부대들에 전달되었다.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선군혁명의 전투사, 육탄결사대로 든든히 준비해갈라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 조국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영예를 떨쳐주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을 열렬히 축하해주는 대표단성원들, 혈육을 만난듯 열사같이 돌아가는 군인들의 열광마다에 기쁨이 넘쳐났다. 대표단성원들은 군인들에게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후방소식을 들려주고 성의껏 준비한 원호품들도 넘겨주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행로를 수놓아온 부대들을 돌아보는 그들의 열광마다에는 수령의

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높이 받들고 선군혁명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선군혁명의 전투사, 육탄결사대로 든든히 준비해갈라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 조국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영예를 떨쳐주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을 열렬히 축하해주는 대표단성원들, 혈육을 만난듯 열사같이 돌아가는 군인들의 열광마다에 기쁨이 넘쳐났다. 대표단성원들은 군인들에게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후방소식을 들려주고 성의껏 준비한 원호품들도 넘겨주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행로를 수놓아온 부대들을 돌아보는 그들의 열광마다에는 수령의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조선중앙통신】

